

96년도 금속용기 시장 진단



1. 서론

각 포장재의 특성을 들라면 장점과 단점을 늘어놓으며 리스트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본 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금속용기의 경우 안정성, 위생성, 장기보관성, 편리성, 상품성 등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음료시장을 중심으로 포장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만큼 음료시장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금속용기 시장은 최근 한여름의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음료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는 하나 기존의 음료들이 탄산음료를 중심으로 주로 캔음료가 성행했던데 비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욕구에 맞추어 음료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포장재의 변화도 이어지면서 캔의 소비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식품산업의 발달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 온 국내 제관산업은 이제 식품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그 종류와 기능의 다양화를 꾀해야 할 때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근래 들어 몇년의 여름이 폭염이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무덥다. 이에 따라 음료시장도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제관사는 총 6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식·음료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10개사로 전체 매출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음료시장의 변화에 따라 제관업체의 동향도 변화할



▲ 다양한 사이즈로 선보인 맥주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기후의 영향과 더
불어 몇년 사이 음
료시장을 휩쓸고
있는 전통음료 시
장의 강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94년 이후 근 2
년여동안 음료시장
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식혜음료는
캔으로 출시되었는데 3pc캔을 보편화시킨 음료
이기도 하다.

이 식혜의 등장 이후 점차로 등장하고 있는
전통음료의 경우는 대추음료, 당근주스, 토마토
주스 등 주로 제품의 원색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제품들로 캔제품으로도 생산되고 있
지만 주로 패밀리사이즈의 유리병에 담겨 출시
되고 있다.

94년 식혜의 등장으로 탄산음료 및 주스음료
시장의 성장율이 급격히 저조해 졌는데 96년에
들어오면서 등장한 대추, 당근 주스 등 전통음
료 시장의 다양화 추세를 타고 탄산음료와 주스
시장이 제자리찾기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스시장의 경우 갈아먹는 음료가 전통음료 못
지않은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품의 과실을 눈
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유리병
으로 포장했을 경우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주로
캔음료로 출시되고 있다.

탄산음료의 경우 주종을 이루고 있는 두 종
류 정도가 출시되고 있는데 콜라제품이 여러 회
사들로부터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미비하기는



▲ 다양한 종류로 인기있는 참치캔·햄캔 제품

하지만 경쟁이 불
었고 각 사 제품들
이 독특한 개성을
가진 디자인을 추
구하고 있으며 광
고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전력을 기
울이고 있다.

음료와 함께 제
관의 주종을 이루
고 있는 맥주캔의
경우 OB맥주, 조선

맥주, (주)진로 등 맥주 3사가 신제품을 출시하
면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음료 및 주류소비
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기점으로 250ml 신관형
이 출시되어 관심을 끌었으나 기대에 훨씬 미치
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생산업체에서 맥주를 음료개념으로 보
고 홍보전략도 '무더울 때 길에서 간단히 서서
마시는 맥주'라는 방향으로 설정해 신세대를 타
겟으로 삼았으나 우리나라의 술문화와 소비자
들의 인식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개념으
로 애초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큰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캔시장의 경우 음료와 함께 통조림류가 주류
를 이루고 있는데 몇년간 꾸준히 소비자들로부
터 사랑받고 있는 참치캔이 통조림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참치캔의 경우 처음 등장당시 소비자들에게
낯설었던 참치라는 담백한 맛의 생선을 요리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
다는 개념을 주입시키면서 급격히 수요가 증가
하기 시작했다.

참치캔의 경우 생산초반에는 기구를 이용해 돌려 여는 형식으로 출시되었는데 최근에는 원터치캔이 생산되고 용량도 다양화된 실정이다.

최근 이 원터치캔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참치캔을 잡고 원터치캔을 개봉하는 경우 모서리에 손을 다칠 염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뚜껑에 개봉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방법으로 개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터치캔의 경우 뚜껑의 끝부분을 본체에 부착시켜 재활용시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어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캔의 종류도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스틸캔보다는 알루미늄캔으로 대체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를 중심으로 재활용도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료캔의 경우에도 개봉시 탭이 본체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재질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마크부착을 의무화해 분리수거 및 재활용시 용이하다.

이처럼 업계와 민간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개선의 움직임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체계적인 지원책과 정책이 성립되고 있지않아 캔재활용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제관시장의 경우 94년 이후부터 그 수치는 작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캔의 가격은 80년대보다 오히려 낮아져 제관업계전반에 걸친 영세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원부자재인 D&I 석판가가 연간 49%정도로 큰 폭 상승하고 있으나 캔의 원가는 물가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제관업계와 관련된 업계의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3. 결론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화된 욕구에 조용하기 위한 각 산업군의 노력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제관업계 역시도 작년 신관형을 선보이는 등 신제품의 출시에 노력을 쏟고 있으나 환경친화적인 캔과 다양한 형태의 관형에 대한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료 및 몇몇 식품산업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대를 꾀하고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캔의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민간체제이기는 하지만 타 포장용기에 비해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분리수거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분야가 제관업계이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발전하고 각 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제관업체들의 경영회복일 것이다.

국내 제관사들의 경우 보유기술의 우수성과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위치, 그리고 관련업체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속용기의 장점과 재활용체계에 대한 지원책, 업계 스스로의 기술개발노력, 그리고 각 관련산업계의 관심과 협조 속에 97년에는 한층 발전한 모습의 제관업계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윤지은기자